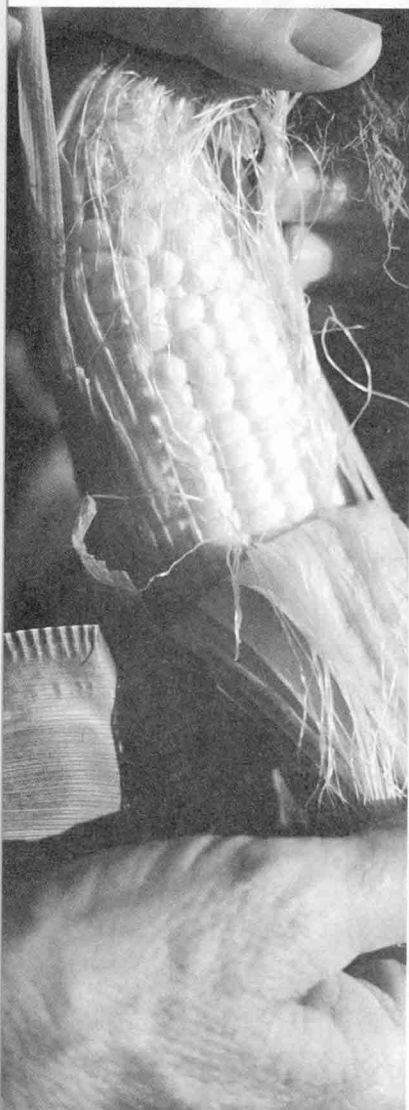


인수위, 농가 사료구매자금 1조원 특별지원

양돈협회, 국회의원 등 대상 전방위 요구 결실



사료가격 상승에 힘든 양돈농가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대한양돈협회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농가 사료구매자금으로 1조원이 투입된다.

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형오 부위원장은 지난 4일 브리핑을 갖고 사료값 급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"고 밝혔다.

인수위에 따르면 지난해 사료가격 상승으로 올해 농가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할 비용은 1조 5천억원에 달하며, 이중 배합사료 가격은 26% 증가했으며, 올해도 20% 이상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농가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"고 밝히고, 이러한 상황에 한미 FTA 비준 등의 문제가 더해져 농업인의 불안감이 큰 상태여서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.

이에 따라 인수위는 우선 양돈 및 한우농가 등에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기로 했다. 현재 12~24%에 달하는 사료 외상구매 이자를 낮춰 3% 저리에 1년 상환기간을 조건으로 특별지원한다는 것이다. 아울러 인수위는 이들과 더불어 사료 원료 관세율을 인하시키고, 올해 말 종료되는 배합사료 협의를 거쳐 내 놓은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더욱이 양돈협회(회장 김동환)는 최근 사료값 급등과 관련, 사료 안정기금을 조속히 마련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양돈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돼지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한데 따른 결과로 양돈농가에 더욱 값진 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,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돈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사례라 더욱 의미있는 소식이라 할 수 있다. **양돈**